한국문학논총 제53집(2009. 12) 377~404쪽

백도기의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와 복음서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차 봉 준*

차 례

Ⅰ. 들어가는 글 - 기독교 소설의 새 지평
Ⅱ. 빌라도와 관련한 전승들과 텍스트의 서사적 연계성
Ⅲ. 빌라도에 대한 몇 가지 변명과 옹호
Ⅳ. 권력과 책임의 상관성에 대한 문학적 시론
Ⅴ. 나오는 글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백도기의 단편 소설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를 복음서의 전승과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서 분석했다. 백도기는 등단 초기부터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기 성찰과 비판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라는 신분에도 단순히 호교적 차원의 종교문학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부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실존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 세계의 진상을 폭넓게 진술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소설사의 비중 있는 작가로

* 숭실대학교 강사

평가받는다.

본 연구의 대상인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빌라도'라는 인물을 서사의 전면에 등장시킴으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씻을 수 없는 회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뇌하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권력'과 '책임'이라는 문제의 상관성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복음서의 전승과 여타의 역사적 전승들이 백도기의 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빌라도의 항변에 담긴 의미의 타당성을 논증하고, 아울러 빌라도에 대한 작가의 옹호와 변명에 담겨진 기독교적 사유의 특질에 접근을 시도했다. 그 결과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란 '진리'와 '선'과 '정의'에 근거해서 '그 시대의 불의와 행악'에 맞서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며, 따라서 그러한 불의와 행악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통치자에게 있다는 작가의 현실적 역사인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기독교 문학, 기독교적 상상력, 기독교 전승, 백도기, 복음서, 본디오 빌라도, 상호 텍스트성

Ⅰ. 들어가는 글 - 기독교 소설의 새 지평

단편 <어떤 行列>(1969)의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백도기는 이후 발표한 <골짜기의 종소리>(현대문학, 1970), <銀製의 十字架>(새생명, 1970), <젊은 裸木>(월간문학, 1971), <아벨의 피>(월간문학, 1972) 등의 소설들에서도 현실과 기독교의 관계에 주목한 작가 의식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청동의 뱀>(문학과 지성, 1974)에 이르면 제도화된 기독교에 대한 신

랄한 자기 성찰이 두드러지게 부각됨으로써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실천적 태도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1] 이와 같은 백도기 소설의 현실 지향성은 그가 한국의 신학적 풍토에서는 다분히 진보적 성향이 농후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후 이 교단 소속의 목사로서 사목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대체로 예상 가능한 일이다.[2] 따라서 백도기 소설에 대한 기독교 소설사적 평가도 현실의 부패

1) 문용식은 백도기 소설 <청동의 뱀>을 분석하면서 "그의 소설 대부분은 인간의 내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사회구조에 내재해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반성"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훼손된 현실 속에서 타락한 실존을 인식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주체 인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의 소설의 본령을 찾고 있다.(문용식, 「백도기의 <청동의 뱀>에 나타난 주체 인식의 과정 고찰」, 『문학과 종교』 제13권 2호,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2008, 97쪽.) 마찬가지로 임영천과 김봉군도 이 소설에 대해서 산업화로 인해 급속히 물질화되어 가는 세태, 그리고 이러한 세태 그대로를 소설적 대상으로 껴안고 있는 한국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평가했다.(임영천, 『기독교와 문학의 세계』, 대한기독교서회, 1991, 88쪽. 김봉군, 「패륜의 카오스와 어둠 속의 중개자」, 『한국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 민지사, 1997, 237쪽.) 대체적으로 <청동의 뱀>에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문학적 논의들은 백도기의 소설이 기독교의 문제를 현실과의 대응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는 평가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특질이 <청동의 뱀>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 한국신학대학(現 한신대학교)은 조선신학교를 전신으로 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1952년 조선신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던 김재준 목사가 '聖書無誤說'과 '逐字靈感說'을 부정하고 이른바 '聖書有誤說'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장로교 총회에서 제명당한 뒤 설립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학교이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창립 선언에서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자조·자립의 함양', '에규메니칼 정신의 철저' 등을 강령으로 세울 정도로 진보적 신학의 선두에 서 있다. 백도기가 이러한 신학교육의 영향 아래에 의식이 다져졌다는 점은 그의 문학적 지향과 결코 무관치 않다.(민경배, 「한국 교회사」, 종교교재 편찬위원회편, 『종교현상국 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194쪽.) 또한 5·16군사쿠테타가 일어난 아침 서남동 교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란 이다지도 인간 역사와 무관한 것인가?'를 고심했다는 점, 그런데 이 교수가 민주투쟁의 선봉에 서서 해직교수가 되고, 감옥에 갔다 오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이러한 신학사상의 변혁이 백도기 자신에게 귀중한 문학의

와 부조리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기 성찰과 비판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독교 문학사에서 백도기가 차지하는 위상은 성민엽의 글에서 적절히 드러난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문학을 '고정관념화된 기독교나 그것을 빌어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과의 대결을 통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진정한 신앙을 추구'함이라는 송상일의 주장에 기대어,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정신이 반영된 문학,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인간 존재의 실존적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한 성찰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학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정신의 추구가 백도기의 소설에서 자못 긍정적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고 평가하여 그에게서 한국 기독교 문학의 가능성을 예견했다.[3] 또한 김병익도 "백도기의 소설은 목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 그 삶을 괴롭히는 이 세계의 진상을 폭넓게 진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기독교를 교회와 교역자의 울타리로부터 이 갈등의 현실, 비리의 세계 전체로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의미를 부여했다.[4] 이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백도기는 그 자신 목회자라는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호교적 차원의 종교문학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부정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 존재의 실존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괴롭히는 이 세계의 진상을 폭넓게 진술했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 소설사의 비중 있는 작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백도기가 발표한 다수의 기독교 소설들 가운데 복음서의 전승을 선명

동기와 이유를 제기해 주었다는 고백에서 작가의 문학이 걸어 온 길을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백도기, <작가연보>, 『우리시대 우리작가』15, 동아출판사, 1987, 422-423쪽 참조.)

3) 성민엽, 「기독교 문학의 가능성」, 위의 책, 409-410쪽.

4) 김병익, 「고통의 의미와 세계의 인식」, 『청동의 뱀』, 현대사상사, 1976, 286-292쪽.

히 인지할 수 있는 두 편의 소설이 있다. 그 하나가 1978년 『기독교 사상』에 연재한 후 이듬해 단행본으로 출판한 장편소설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전망사, 1979)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8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본시오 빌라도의 修己>[5](문학사상, 1986.12)이다. 작가는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와 배반자 '가룟 유다'라는 성서상의 두 인물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념과 '정의'라는 규범의 대립을 부각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윤리적 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문학적 상상력을 확대한 바 있다.[6]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일한 전승을 근간으로 하는 소설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한 발표한 것이다. 이 두 텍스트는 우선 분량 면에서 전자가 장편이었음에 비해 후자는 단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자가 '시므온'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서사가 전개된 반면 후자는 '빌라도'라는 성서상의 등장인물이자 역사적 실존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자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후자는 예수를 처형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소설 모두 예수의 죽음과 직결된 문제적 인물, 즉 후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비난에 직면한 인물들에 대한 나름의 변호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고는 이 두 텍스트 중에서 <본시오 빌라도의 修己>에 주목하고자

---

5) 백도기가 1986년 12월 『문학사상』에 발표한 소설의 제목은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번역한 신약성서에는 '본시오 빌라도'가 아닌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로 일관되게 표기되어 있다. 개신교 목사인 작가가 굳이 '본디오'를 '본시오'로 명기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는 추후 작가의 입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점이다. 본고에서는 소설의 본문과 제목을 인용함에는 '본시오 빌라도'라 하겠지만, 서술 과정에서는 신약성서의 방식을 따라 '본디오 빌라도'라 표기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아울러 이후 본고에서 인용할 소설 원문은 『문학사상』(1986, 12, 문학사상사, 185-204쪽) 170호에 수록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6) 황효숙, 「한국 현대 기독교 소설 연구-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0-41쪽.

한다. 그 동안 복음서의 전승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다수의 소설들은 대개가 예수의 수난과 부활,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테면 김동리의 '木工 3部作'[7]이나 <사반의 십자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박상륭의 <아겔다마>, 백도기의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백도기는 매우 흥미로운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간 대중의 관심에서 비껴있었던 빌라도를 서사의 전면에 등장시킴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그 며칠간의 인간적 고뇌와 씻을 수 없는 회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뇌하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권력과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너무나 미약했다. 다만 이동하의 몇몇 평론들에서 이 소설에 대한 개략적 소개가 있었을 뿐이다.[8]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도기의 텍스트를 빌라도와 관련된 복음서를 포함한 다양한 전승들과의 상호 텍스트적[9] 관계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소

---

7) 이 명칭은 김동리의 단편 <마리아의 회태>, <목공 요셉>, <부활> 등을 함께 묶어 부르는 표현으로, 김윤식 선생에 의해 처음 사용된 후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통용되고 있다.

8) 이동하는 세련되고 단아한 문체, 인간에 대한 깊고 섬세한 통찰, 속악한 현실에 대한 치열한 비판 의식, 그리고 예수 시대 및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역사와 풍속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인한 상당한 수준의 리얼리티의 확보에 따른 디테일한 전개 등에서 이 소설이 지닌 미덕을 찾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미덕에도 불구하고 의표를 찌르는 독창적 상상력의 부재에서 한계를 지적하며, 때문에 이 소설이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보다 떨어지고, 카잔차스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과 보리슬라프 페키치의 <기적의 시간>, 엔도 슈사쿠의 <사해 부근에서>보다도 떨어진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놓았다.(이동하, 「<본시오 빌라도의 수기>와 관련된 몇 가지 단상」, 『한국 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25쪽.)

9) 본고에서 텍스트 분석의 틀로 제시한 '상호 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를 결코 독자적이거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성되며,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자 변형으로 파악함으로써 텍스트의 체계를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Julia Kristeva, 「말, 대화, 그리고 소설」, 여홍상 엮음, 『바흐친과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237쪽.) 이 개념을 고안한 줄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텍스트

설이 지닌 기독교 소설로서의 가치를 일차적으로 규명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텍스트적 분석을 바탕으로 백도기 문학의 본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문학의 현실 지향성에 대한 규명, 즉 권력과 책임의 상관성이라는 역사 인식에 근거한 작가 의식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규명해 냄으로써 작가가 지닌 기독교적 세계관의 실체에 도달하고자 한다.

Ⅱ. 빌라도와 관련한 전승들과 텍스트의 서사적 연계성

기원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의 팔레스타인 입성과 함께 유대 전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로마의 집권층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행정적·군사적 자원의 투입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두었다. 때문에 유대 지역은 로마의 세력권에 놓인 이후에도 약 20여 년 간(63-40 BC)은 과거 이 지역을 통수하고 있던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내정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왕조가 점진적으로 정치적 힘을 잃어가던 시기에 이두매 출신인 헤롯의 부친이 유대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집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어느 한 발화가 화자나 청자와 맺고 있는 '수평적' 관계와, 그 이전 혹은 동시대적인 다른 발화와 맺는 '수직적' 관계로 구별하면서 특히 후자의 상호 관련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백도기의 <본시오 빌라의 手記>는 이전 시대의 다양한 복음서 전승과 유대 역사적 전승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적 고찰이 매우 적확한 텍스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은 좁은 의미에서는 다른 텍스트가 인용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사이에 작용하는 텍스트가 쓰여진 모든 시대의 지식, 그리고 당대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담론의 형식, 즉 역사나 철학·과학·예술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이미란, 『한국현대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24쪽.)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본고의 대상인 백도기의 텍스트에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며, 따라서 본고는 이 두 가지 상호 텍스트성의 특성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권층의 후원을 등에 업은 아들 헤롯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왕'으로서 권한이 행사되었다. 그렇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무능함으로 인해 추방당하자(AD 6), 로마의 집권층은 비로소 총독과 군대를 파송함으로써 유대지역에 대한 직접적 통치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기원후 6년부터 유대 전쟁이 발발한 66년 사이에 무려 14명의 로마 총독들이 파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약성서에는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체포와 투옥에 관련된 안토니우스 벨릭스(Antonius Felix)와 포르시우스 베스도(Porcius Festus) 등 세 명의 총독이 언급되어 있다.[10]

이 세 사람의 로마 총독들 가운데 복음서에서 가장 큰 문제성을 내포한 인물은 단연 본디오 빌라도일 것이다. 그는 기원후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책임자로 파견된 인물로서 복음서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의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여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악명으로 유전되고 있다.[11] 아마도 기독교의 전승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면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더불어 빌라도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백도기가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에서 빌라도를 서사의 전면에 등장시켜 놓은 점은 여러모로 독자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전략적 선택임이 분명하다. 이 소설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매아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하던 빌라도는 자신의 재임 중 수많은 인명(人命)에 사형을 언도했음에도 유독 나자렛의

---

10) Steve Mason, 유태엽 역, 『요세푸스와 신약성서』, 대한기독교서회, 2002, 142-143쪽 참조.

11) 이 시기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AD 14-37)였고, 유대의 대제사장은 요셉 가야바(AD 18-37)가, 그리고 갈릴리와 뵈레아의 통치권은 헤롯 안티파스(4 BC-AD 39)가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빌라도와 관련한 문학적 서사는 대개 이 시기의 역사적 정황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으므로 인물들 사이의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텍스트의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청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과 회한을 지닌 채 살아오고 있다. 이 소설의 서사는 로마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 나자렛 예수에 대한 사형을 승인하였던 빌라도가 그 사건으로부터 이십 구년이 지난 시간에 당시의 비망록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자기 변명의 글을 남기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빌라도는 사랑하는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큐라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마치 갈가마귀 우짖는 듯한 소리로 아우성치는 대제사장들과 민중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비록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로마 총독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단코 황제의 뜻에 반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당대의 복잡한 정치적 매커니즘 속에서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의 뜻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물론 그가 예수의 생명을 구명키 위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던 군중들의 함성에 예수의 생명을 내어 준 빌라도는, 이후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에 무척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즉 그 자신 예수의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끝없이 되뇌는 후대 기독교도들의 지탄에 인간적인 불만과 아울러 심리적 고충을 지닌 채 살아온 것이다. 예수의 죽음 직후 아내 프로큐라는 물론이고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인대장 말커스마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을 지켜보면서 빌라도는 은연 중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나자렛의 청년 예수에 대해 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자책을 지니게 되었다.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추종자들에 의한 잇단 소요가 황제 티베리우스의 귀에까지 들어가 결국 로마로 소환되어 죽음에 직면할 뻔했던 빌라도는 다행히 로마 도착 하루 전 황제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처형을 면하고 이십 구년의 삶을 연장하여 이제 예순 둘의 나이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실

수를 더욱 명백히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자기 항변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은 아내의 죽음에 따른 것이다. 아내 프로큐라는 예수가 죽은 후로부터 지금껏 지하묘지(카타콤)에 숨어 다니며 기독교도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에 황제 네로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주정뱅이에 미치광이 황제인 네로는 반역자와 이교도의 무리를 처형하는 그 경기장에 빌라도를 초대하여 아내가 죽어가는 장면 앞에서 난처함과 고통을 느끼게끔 명령했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황제의 명을 어기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이 시간 자신이 거느렸던 다섯 노예와 시종 필립보에게 모든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킨 후 자결에 앞서 자기 옹호와 번민에 빠져든 것이다.

이상의 서사는 복음서의 전승과 표면적으로는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많은 유대의 민중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의 앞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점, 이에 대해 빌라도는 수차례 예수를 놓아 줄 방도를 강구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소요에 위기를 느낀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승인했다는 점에서는 복음서의 전승과 동일하다. 그러나 백도기는 소설적 형상화의 과정 곳곳에 빌라도의 목소리를 통해 기독교의 일방적 전승과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들에서 우리는 작가의 남다른 기독교적 사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시대적 모순에 직면한 권력의 정당성을 고민하는 백도기의 성찰을 읽어낼 수 있다.

* <표1> :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 대한 복음서의 서사 비교 분석[12)]

복음서 명칭 / 서사 내용 및 순서	마태복음 (27,11-26)	마가복음 (15,1-15)	누가복음 (23.1-25)	요한복음 (18.28-19.16)
(1)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함	11-14	1-5	1-5	18:33-38 19:8-11
(2)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의 방면을 권유함	19	-	-	-
(3)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어 죽임을 면케하려함	-	-	6-12	-
(4) 명절 전례를 이유로 예수를 방면하려함	15-23	6-14	18-24	18:38-40
(5) 예수를 태형에 처한 후 방면하려함	-	-	13-16, 22	19:1-5
(6) 예수의 죽음에 자신이 무죄함을 선언함	24-25	-	-	-
(7)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김	26	15	25	19:13-16

* <표2> :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의 서사층위와 복음서의 전승 관련 대조표

서 사 층 위		복음서 전 승	기타 전승
내 용	시간		
(1) 예수의 사형언도 당시 비망록 소개	현재	-	-
(2) 아내 프로큐라의 서신-예수의 방면을 권유	과거	마(27:19)	-
(3) 로마의 권력관계와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	현재	-	『유대전쟁사』*
(4) 유대인과의 충돌-케사르의 동상 수립사건	과거	-	『유대전쟁사』
(5) 산헤드린 공회원인 요셉과의 대화	과거	-	-
(6) 예수와의 심문 과정	과거	마(27:11-14) 막(15:1-5) 눅(23:1-5) 요 (18:33-38,19:8-11)	-
(7) 예수의 방면을 위한 시도1 -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어 죽임을 면케하려함	과거	눅(23:6-12)	-
(8) 예수의 방면을 위한 시도2 - 명절 전례를 이유로 예수를 방면하려함	과거	마(27:15-23) 막(15:6-14) 눅(23:18-24) 요(18:38-40)	-

12) 복음서들 사이의 서사에 대한 비교 분석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한글판 개역 관주 성경전서(1962년 5월 10일 초판)>의 표기에 따른 것이며, 이후 본고에 인용한 성서의 출처도 이에 준한 것임을 밝혀둔다.

(9) 예수의 방면을 위한 시도3 - 예수를 태형에 처한 후 방면하려함	과거	눅(23:13-16,22) 요(19:1-5)	-
(10) 예수의 죽음에 자신이 무죄함을 선언함	과거	마(27:24-25)	-
(11) 예수의 부활 소문이 확산되고 그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감. 그리고 빌라도의 내면에 예수가 메시아였을 가능성이 점차 굳어짐	과거	마(28:1-20) 막(16:1-20) 눅(24:1-53) 요(20:1-21:23)	-
(12) 빌라도의 아내가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함	현재	-	유대 설화
(13) 하인들의 신분을 해방시키고 재산을 나누어준 후 자결	현재	-	『교회사』**

*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100년경 사망)의 저작, *Jewish War*
** 유세비우스(Eusebius, 340년 사망)의 저작, *Ecclesiastical History*

위에 제시한 두 표는 빌라도와 관련한 복음서의 전승 및 백도기의 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와 기독교 전승들을 차례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1>은 빌라도의 재판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네 복음서의 서사를 비교한 것인데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심문 과정, 명절 전례를 이유로 예수를 놓아주려한 빌라도의 여러 시도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를 처벌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장면을 비롯하여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내어 죽임을 면케 하려던 시도, 예수에게 모진 채찍질을 가한 후 놓아주려던 시도,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자신은 무죄하다는 선언을 하는 장면 등은 일부의 복음서에만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표2>의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의 서사와 복음서를 포함한 여타의 기독교 전승 자료를 비교해 보면, 백도기가 복음서의 전승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과, 이와 더불어 유대 역사에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사료들과 설화들에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함으로써 순전히 빌라도의 입장에 서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백도기의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에 전개되고 있는 몇 가지 서사에는 복음서의 전승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재했

을 당대의 복잡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인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빌라도의 고충과 처지를 십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 즉 예수라는 청년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놓아주려는 시도를 강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음을 강변하는 장면이 그러하다.(<표2>-서사(3)) 또한 식민지를 통괄하는 총독이라는 우월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중들의 항거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케사르 동상 수립' 사건도 역사적 실증을 서사의 인과성에 결부시킨 흥미로운 부분이다.(<표2>-서사(4)) 이처럼 당대 로마와 유대에 관련한 역사서들에서 논증되고 있는 전승들이 창작의 모티프로 활용됨으로써 빌라도에 대한 주류 기독교의 일방적 비난을 다소 완화된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의 부활 이후 적극적인 기독교도로 개종했으며 결국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 당했다는 서사라든가(<표2-서사(12)>), 결말에 제시된 빌라도의 자결설(<표2>-서사(13)) 등도 복음서의 전승과는 거리를 둔, 반면 여타의 유대 교회사와 설화 등에서 구전되고 있는 전승에 바탕을 둠으로써 텍스트의 서사적 완결성을 꾀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처럼 백도기의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는 복음서의 전승에 기본적 토대를 두고, 아울러 다양한 역사적 실증과 관련 설화들을 적절히 가미함으로써 소설적 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을 텍스트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Ⅲ. 빌라도에 대한 몇 가지 변명과 옹호

복음서의 전승은 예수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어떤 방식으로

든지 그를 놓아주려 노력했다는 사실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중요한 관여자로 빌라도를 지목하기에 서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백도기는 빌라도의 입을 빌어 무죄에 대한 몇 가지 항변을 늘어놓고 있다.

> 나는 오늘 만부득이 한 나자렛 청년에 대한 산헤드린회의의 사형청원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나는 그에게서 반역죄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그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결국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
> 나는 유다인 회중들 앞에서 「내가 비록 마지못해 서명은 하였으나 나의 양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청년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대들이 지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다. 나는 대야에 물을 떠오도록 해서 손을 씻었다. (185쪽)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한 그 무렵에 썼던 비망록에서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만부득이~서명하고 말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판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렸던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버티면서~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허사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거듭 강변하는 데서 당시 자신이 예수에 대해 보여 준 일련의 태도가 상당한 노력의 연속된 과정이었음을 주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대의 평가가 본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고민은 깊어가고, 또한 그 당시 자신의 판결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각성되면서 회의에 빠져든다. 그리고 자신의 판결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 진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메시아일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명의 필요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 변명의 첫 번째 장면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읽어낼 수 있다.

> 나는 아내의 꿈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지만 편지를 가져온 시녀 메

> 리나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일러 보냈다. 총독의 권위로 식민지의 한 시골 청년의 목숨을 살리는 일쯤은 문제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
> 그러나 아내의 애절한 간청이나 나의 결단도 저 미친 악귀들처럼 날뛰며 제 동족인 나자렛의 한 청년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유다인들의 격정 앞에서는 결국 무위하게 되고 말았다.
>
>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총독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 직위와 권력을 다하여 유다인들과 맞섰더라면 그 나자렛 사람의 목숨쯤은 능히 구할 수 있었으리라고 말이다. (186쪽)

복음서의 전승 중에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한다. 백도기의 서사에서 빌라도의 아내 프로큐라는 "사랑하올 주인이시어,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도록 간곡히 애원합니다. 그 나자렛 사람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 그이를 보았습니다"(186쪽)[13]로 시작하는 간곡한 애원의 편지를 남편에게 보내어 예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또한 빌라도 자신의 의지에도 무관하게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만 것이다. 따라서 빌라도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독의 권위로 식민지의 한 시골 청년의 목숨을 살리는 일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의지가 '아우성치는 유다인들의 격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시켜야만 했다. 아울러 '내가 총독의 지위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 직위와 권력을 다하여 유다인들과 맞섰더라면'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나름의 변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먼저 후자의 경우 빌라도는 "내가 로마 총독의 지위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획득이다"(186-

13) 동일한 맥락의 전승이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마27:19). 빌라도의 아내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복음서의 전승 중에는 유일한 내용이다.

187쪽)는 언급을 통해 변명을 시작하고 있다(<표2>-서사(3)). 이후 다소 지루한 서사를 통해 당대 로마의 정치적・역사적 상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피비린내 나는 로마 케사르들의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구나 "갈리아 출신이고 또 군인이며 전사(戰士)로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전쟁터를 휘젓고 다닌 사람"(189쪽)으로서 기어이 로마 총독의 지위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자신의 처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음을 변명한다.

여기에 전자의 비난에 대한 이유가 더욱 의미심장하다. '미친 악귀들처럼 날뛰며 제 동족인 나자렛의 한 청년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유다인들의 격정'은 빌라도에게 체제의 위해요소로 느껴질 수 있었다.(<표2>-서사(4)) 실질적으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전쟁사』에서 빌라도를 "둔감하고 잔인하며 변덕스러운 인물"[14]로 소개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예증에서 이러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빌라도는 조각된 형상이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깃발을 밤에 몰래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았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20:4-5)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다. 요세푸스는 "밤에, 숨겨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빌라도의 행위가 의도적인 위반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었고, 또한 결사적이었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이사랴의 해변에 위치해 있던 빌라도의 관저에 몰려든 유대인들은 5일 동안이나 관저 잔디밭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 유대 군중들을 야외 극장으로 모이게 했고 군대로 하여금 그곳을 포위한 후, 만약 끝까지 버

14) Steve Mason, 유태엽 역, 앞의 책, 146쪽.

틴다면 죽이겠다고까지 위협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며 군인들의 칼 앞에 목을 내놓았고, 이에 굴복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깃발을 철거한 사실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전승되어 있는 것이다.[15] 이처럼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한편 성가신 존재이자 또 한편 위협적 존재로서 각인되어 있었다. 따라서 로마 총독의 지위에 오른 것이 '그야말로 획득'의 처지인 빌라도에게 한갓 식민지 시골 청년의 문제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해지고 있는 첫 번째 비난, 즉 그가 총독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총독의 권위로 예수의 목숨을 충분히 구명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를 죽임에 이르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임무의 방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비난에 대해 빌라도의 편에 서서 옹호하고 있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자신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을 강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 세 가지 방책을 시도했다. 예수에 대한 판결을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위임해 버린 것(<표2>-서사(7)), 명절(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방면해 주는 전례를 적용하여 예수를 방면하려 한 것(<표2>-서사(8)), 그리고 이른바 '반죽음'이라는 형벌(태형)을 가함으로써 예수에게 십자가의 형벌만은 피하게 하려했다는 점(<표2>-서사(9)) 등을 통해 후대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

15) 위의 책, 146-147쪽 참조. 이 외에도 유세푸스는 빌라도의 잔인한 인물평에 대해 예루살렘 수로 건설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예루살렘에 물을 대는 수로 건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 금고에서 돈을 꺼내 사용했다. 역시 분개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와 해명을 요구하며 빌라도를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했으며, 이에 빌라도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난폭하게 진압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볼 때 빌라도는 유대 민중들의 거센 항의를 수차례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결사항전의 태세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아울러 자칫하면 황제에게 나쁜 소문이 들어가 총독의 지위에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⑴ 그가 갈릴레아인이기 때문에 그를 재판할 권리가 갈릴레아 왕에게 있다고 핑계하여 그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다. 안티파스는 마침 유월절을 앞둔 시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별궁(別宮)에 와 있었다. 내가 노린 것은, 케사르가 이름뿐인 식민지의 왕들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는 따위의 행위를 거의 월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저 자신이 살인광인 주제에 어떤 사람이 제 노예를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 사형을 시키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안티파스가 예수를 죽이지 못하리라는 계산을 했던 것이다. (198쪽)

⑵ 나의 두 번째 시도는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방면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살려보려는 것이었다. 나는 군중에게 예수 바라바라는 사내와 나자렛의 예수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들은 둘 다 공교롭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였다. 나는 바라바가 로마인을 한 사람 죽일 때마다, 갑자기 거리를 막고 통행인들 열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는 방법으로 그들의 폭력이 오히려 민심을 잃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으므로 바라바라는 자가 은근히 유다인들의 미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8-199쪽)

⑶ 두 가지의 예상이 다아 어긋나버리자 나는 마지막의 비방을 사용하였다. 예수에게 이른바 「반죽음」이라고 알려진 가혹한 형벌을 군중 앞에서 행하게 하므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히려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방법이었다.

옷을 벗긴 후에 형틀에 매달고 쇠못이 달린 가죽채찍으로 서른 아홉 대를 갈기도록 했다. 등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했다.

형벌이 끝났다.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형틀에 엎으러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 군중들 앞에 내놓고 소리쳤다.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너희들의 부질없는 미움이 이 죄없는 사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 사람을 보라. 너희들이 이 사람에게 행한 짓을 보아라.

그러나 그들은 아우성쳤다.

「십자가에 못박아라!」 (199쪽)

인용한 세 지문의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취한 최선의 방책이자 고육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결국 빌라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탓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인용문 (1)에서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낸 사실은 누가복음(23:6-12)의 전승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판결권을 헤롯에게 위임시켜버리려는 의도에서였다. 즉 '케사르가 이름뿐인 식민지의 왕들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는 따위의 행위를 거의 월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헤롯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결국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도한 계획이었다. 다음으로 인용문 (2)의 명절의 전례를 따라 죄수 한 명을 방면해 주는 일화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승이다. 여기서도 빌라도는 '바라바가 로마인을 한 사람 죽일 때마다, 갑자기 거리를 막고 통행인들 열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는 방법'으로 이미 바라바는 민심을 잃었고, 따라서 당연히 예수의 방면이 가능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시도한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용문 (3)의 태형의 형벌 역시 누가복음(23:13-16,22)과 요한복음(19:1-5)의 전승에 기초한 것인데, 예수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가한 후 유대인들 앞에 세움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히려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방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책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으며, 결국 예수는 십자가의 형틀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와 민중들을 향한 빌라도의 설득은 그의 항변대로 예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게 한다. 아니, 오히려 그의 최선에 대해 후대의 기독교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연민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빌라도에 대한 옹호의 일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Ⅳ. 권력과 책임의 상관성에 대한 문학적 시론

백도기의 소설에 드러난 빌라도의 고민은 “내가 예수를 살리기 위해 애쓴 노력에 대해서 그 결과 때문에 칭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적어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191쪽)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나의 정보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예배할 때 일상적으로 외우는 신조(信條) 가운데, 「본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十字架)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라는 구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당황하였으며 무인답지 않게 깊이 상심”(191쪽)했노라는 고백과 함께, 불쾌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빌라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의 입에서 “안나스와 가야파를 비롯한 대사제들과 산헤드린 의회의 원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 넘기워졌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의 무죄한 피와는 무관하다고 선언하고 손까지 씻은 나를 끌어 넣는 것인가”(192쪽)라며 후대 역사적 기술의 불공평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일견 빌라도의 울분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 불안을 느낀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비열함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후대의 기록이 빌라도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한국어 성서 번역상의 오류가 지적되기도 한다. ‘본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은 사도신경의 원문에서는 ‘passus sub Pontio Pilato’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治下)에서’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올바르다. 이는 영어 번역에서도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16]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가 고난을 받으셨다

16)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동하는 현대 기독교가 빌라도에게 쏘우는 굴레가 가혹할 정도로 혹독하며 부당한 처사라고 공박한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번역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든가 혹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을 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이의 폐기까지도 강력히 요구한다. (이동하, 앞의 글, 28

는 것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차이는 엄연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만으로 빌라도의 책임이 덜어질 수는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며, 작가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빌라도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백도기는 이를 권력자의 책임 의식과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다.

> 요셉은 조용히 듣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서슴지 않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없이 권력의 힘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 시대의 권력의 최고 책임자가 아무리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대야의 물에 수천 수만 번 손을 씻었다고 할지라도 그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 왜냐하면 통치자는 무릇 진리와 선(善)과 정의로서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도록 신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불의한 행악(行惡)을 막지 못한 최종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었다. (192-193쪽)

빌라도는 예수의 재판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을 불러들인다. 그는 의회가 예수를 죽이려는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던 인물로서, 예수의 죽음 뒤 스스로 공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은밀히 예수의 제자들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인물이다.[17] 그래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후, 이의 시정을 요구하려고 불러들인 것이다. 하지만 요셉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도저히 피

~29쪽. 이동하, 「복음서의 빌라도, 필로와 요세푸스의 빌라도, 정찬의 빌라도」, 『한국현대소설과 종교의 관련 양상』, 푸른사상, 2005, 121-123쪽.)

17) 복음서와 기타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당시 공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처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넘겨받아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 속에 예수를 장사지낸 의로운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마태복음(27:57-61), 마가복음(15:42-47), 누가복음(23:50-54), 요한복음(19:38-4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단호한 선언이었다. 요셉의 주장에 따르면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란 '진리'와 '선'과 '정의'에 근거해서 '그 시대의 불의와 행악'에 맞서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의와 행악을 막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통치자가 져야 하는 것이며, 더구나 '어떤 사람이 죄없이 권력의 힘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면할 수 없다는 요셉의 일갈은 작가 백도기의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든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관여치 않았다하더라도 '그 시대 권력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백도기의 입장은 다음의 글에서 더욱 분명히 밝혀져 있다.

> 내가 여기서 다루어 보고 싶었던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조명될 때 어떻게 보일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주인한테 매를 맞은 종이라고 해서 밖에 나와 동냥 온 거지에게 분풀이를 안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힘의 사용 문제에서 인간인 우리는 누구나가 빌라도적(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18]

권력과 책임의 상관 관계, 바로 이것이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를 통해 백도기가 궁구해보고자 한 주제의식의 단초였다. 아무리 대야에 수십 번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지라도 '권력'을 지닌 자로서의 책임 의식은 벗어질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간인 우리는 생의 순간에 누구나 '빌라도적(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데서 이를 과거 어느 낯선 땅에서 벌어진 빌라도만의 문제로 간단히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백도기의 문학이 놓인 시대적 지형 속에서도

18) 백도기, <작가의 말>, 「본시오 빌라도의 수기」, 『문학사상』170, 문학사상사, 1986.12, 187쪽.

권력과 책임의 상관성은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져놓고 있다. 지나온 한국의 역사적 정황들, 그리고 이 소설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은 바로 이러한 권력과 책임이라는 문제의 한복판에 놓여 있던 시대라는 점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은 더욱 분명해진다.

Ⅴ. 나오는 글

지금까지 본 연구는 백도기의 단편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를 중심으로 텍스트가 근간으로 삼은 복음서와 여타 유대 전승들과의 상호 텍스트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백도기의 텍스트는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수용된 빌라도 관련 전승을 충실히 반영한 바탕 위에 권위 있는 유대 역사서의 전승과 각종 설화적 전승까지 과감히 수용하여 이를 소설적으로 허구화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전승을 토대로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는 작가의 시각에는 기존의 복음서 저자들과는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즉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케 한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빌라도가 중요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류 기독교의 태도에 나름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지극히 빌라도적인 입장에 서서 그의 복잡한 심경을 헤아리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이 텍스트가 지닌 재미는 한층 부각된다. 빌라도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놓아주려했던 다양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점이라든가, 총독의 직위를 빌어 예수를 지키지 못한 당대의 정치적 매커니즘에 대한 작가의 부언 등은 이러한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빌라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뒤엎는 촉매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전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작가는 공감을 표한다. 이는 권력자에게 부여된 권력과 책임의 피할 수 없는 상관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어느 작가에 못지않게 시대와 역사에 민감했던 백도기의 역사 인식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도기는 한국 현대사가 지닌 아픈 시대의 상처 속에서 한 사람의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권력과 책임의 상관성에 대한 고민이 그 누구보다 깊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라벌예대를 중퇴하고 쉬고 있던 그가 1961년 신학교에 편입한 동기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와 '신이 선하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거나, 전능하다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근원적 회의 속에서 싹튼 그의 신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세계 인식은 단연 독특할 수밖에 없다.[19] 백도기에 있어서 문학이란 결코 삶과 동떨어진 것일 수 없는,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문학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신학과 문학은 궁극적으로 삶의 아름다움에로의 지향이란 점에서 일치"[20]한다고 보았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에 문학과 신학은 공동의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백도기의 기독교 문학은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 현실의 문제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민엽은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성의 사회·정치적 질서와의 결탁이고 지배 이데올로기에의 복무"[2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은 이러한 제도화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백도기의 문학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백도기의 대표작인 <靑銅의 뱀>과 <어떤 行列> 등에서 이와 같은 작가의 문학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고의 대상인 <본시오 빌라도의 手記>에서도 제도화된 기독교의 비판과 부정이라는 그의 신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9) 백도기, <작가연보>, 앞의 책, 422-423쪽.
20) 백도기, 「작가노트-더 많은 '열림'을 위하여」, 위의 책, 421쪽.
21) 성민엽, 앞의 글, 409쪽.

참고문헌

김병익, 「고통의 의미와 세계의 인식」, 『청동의 뱀』, 현대사상사, 1976, 286-292쪽.

_____,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30-58쪽.

김봉군, 「패륜의 카오스와 어둠 속의 중개자」, 『한국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 민지사, 1997, 237-246쪽.

김희보, 「기독교 문학 서설」, 김우규 편저,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1992, 5-23쪽.

문용식, 「백도기의 「청동의 뱀」에 나타난 주체 인식의 과정 고찰」, 『문학과 종교』 제13권 2호,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2008, 97-120쪽.

백도기, 「본시오 빌라도의 수기」, 『문학사상』 170, 1986.12, 185-204쪽.

성민엽, 「기독교 문학의 가능성」, 『우리시대 우리작가』15, 동아출판사, 1987, 409-418쪽.

여홍상 엮음, 『바흐친과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이동하, 「「본시오 빌라도의 수기」와 관련된 몇 가지 단상」, 『한국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23-39쪽.

_____,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 『한국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254-268쪽.

_____, 「복음서의 빌라도, 필로와 요세푸스의 빌라도, 정찬의 빌라도」, 『한국현대소설과 종교의 관련 양상』, 푸른사상, 2005, 117-134쪽.

이미란, 『한국현대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이보영, 「기독교문학의 가능성」, 『한국소설의 가능성』, 청예원, 1998, 13-63쪽.

이상설, 『한국 기독교 소설사』, 양문각, 1999.

임영천, 『기독교와 문학의 세계』, 대한기독교서회, 1991.
황효숙, 「한국 현대 기독교 소설 연구-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Julia Kristeva, 「말, 대화, 그리고 소설」, 여홍상 엮음,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234-267쪽.
Steve Mason, 유태엽 역, 『요세푸스와 신약성서』, 대한기독교서회, 2002.

<Abstract>

Inter-textual Study on Do-gi Baek's 「Memorandum of Pontius Pilate」 and the Gospels

Cha, Bong-Jun

This research analyzes the Old Testament of the Gospels and 「Memorandum of Pontius Pilate」, a novelette written by Do-gi Baek, in inter-textual relations. Since his first proceed to the platform, Baek has been writing literature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conscience and critical cognition of a Christian on the absurdity of reality. Despite of being a Pastor, he is being noted for not limiting his work to a simple religion-favoring writings, but rather to make cutting remarks and denial of an institutionalized Christianity. He is also portrayed to be an influential author of the Christian Novel Society for his thorough statements on human being's examination of existential & social condition of this world.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Memorandum of Pontius Pilate」, illustrates human suffer and irrevocable repentance on the death of Jesus by fully presenting in its prologue, a character named 'Pilate', who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crucifixion of Jesus. The novel is also explo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oday's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issues from the sufferings of Pilate. A Comparative Analysis on how the Old Testament of the Gospels and the other historical Testaments are demonstrated in Baek's novel has been

attempted in this study in a context of inter-textuality. Based on this analysis, argument on meaning and pertinence of Pilate's contradiction was made. In addition, the author's vindication and justification implying the Christianized reasons are approached. Conclusion was reached following these attempts: for the Leaders, whose authority was delegated from God, holding out against 'immorality and evil of the generation' while rendering 'truth', 'virtue', and 'justice' is an absolute responsibility. Accordingly, the author's extensional appreciation of history, in which the Leaders are to be blamed entirely when they can not defend against such immorality and evil, can be derived as well.

Key Words : Baek Do-gi, Christian Imagination, Christian Literature, Christianity Tradition, Gospel, Inter-textuality, Pontius Pilate

▌논문접수 : 2009년 11월 10일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